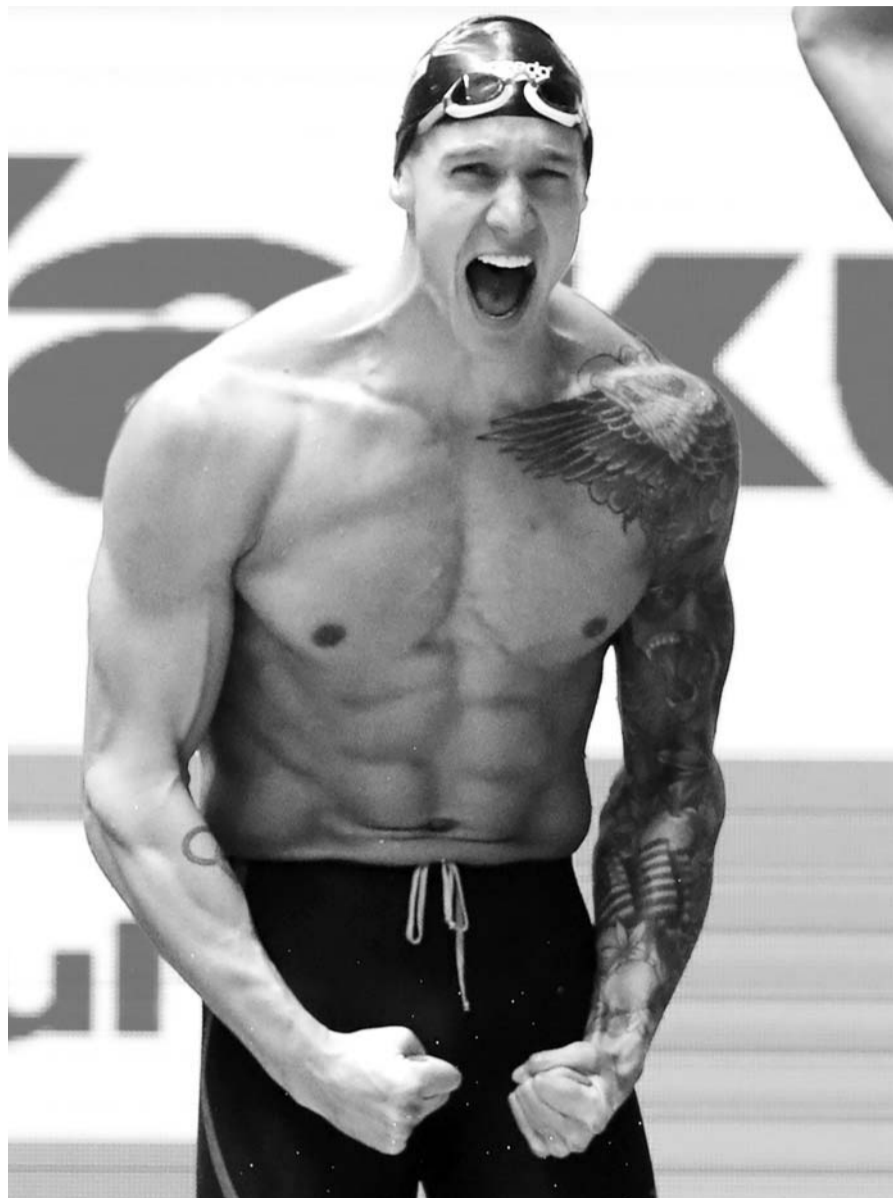


다관왕 드레셀·시련 이겨낸 러데키...광주 '최고의 별'



카일럽 드레셀

평영 100m·접영 200m 등 세계신 8개·대회신 14개...기록도 풍성
고열·탈수 러데키 막판 금메달...약물 논란 '썬양 패싱' 체면 구겨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수영 황제' 카일럽 드레셀의 대관식이었다. 미국의 카일럽 드레셀(23)은 이번 대회에서 6관왕(28일 오후 6시 현재)에 오르며 세계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2017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7관왕과 대회 남자부 최우수선수(MVP)에 오르며 혜성처럼 등장한 드레셀은 이번 대회 남자 자유형 50·100m와 접영 50·100m, 남자 계영 400m, 혼성 계

영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혼성 혼계영 400m에서는 은메달을 차지했다. 접영 100m 준결승에서 49초50의 세계기록을 세웠고, 자유형 50m 결승에서는 21초04의 대회기록으로 우승했다. 드레셀은 지난 27일 하루동안 자유형 50m, 접영 100m, 혼성 계영 400m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혼성 계영 400m 결승에서는 첫 번째 주자로 나서며 세계기록(3분19초40)을 세우는데 일조했다.



케이티 러데키

선수들의 활약 만큼 이번 광주세계수영 선수권대회는 기록도 풍년이었다. 경영이 시작된 대회 첫날(21일)부터 세계기록이 나왔다. 지난 21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평영 100m에서는 영국의 아담 피티(25)가 자신이 갖고 있던 종전기록을 0.22초 앞당긴 56초88으로 세계기록을 경신했다. 이어 지난 24일 헝가리의 크리스토프 밀라크(19)는 남자 접영 200m 결승에서 10년 묵은 마이클 펠프스(미국·은퇴)의 기록을 0.78초나 단축하며 1분50초73의 기록으로 세계기록을 세웠다. 지난 25일 호주는 여자 계영 800m에서 7분41초50으로 세계기록을 세우며 1위에 올랐다.

자유형 400m에서 깜짝 금메달을 획득한 아리안 티트머스(19)는 호주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며 우승에 힘을 보태며 2관왕에 올랐다. 28일 오전까지 세계신기록 8개, 대회신기록 14개, 세계 주니어신기록 4개 등 각종 신기록이 쏟아졌다.

반면 수영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미국의 케이티 러데키(22)와 중국의 간판 썬양(28)은 질은 아쉬움을 남겼다. 부다페스트 대회 5관왕을 차지했던 '수영 여제' 러데키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고열, 탈수 등이 겹쳐 주종목인 자유형 400m에서 신예 티트머스에게 타이틀을 빼앗겼다. 이어 자유형 1500m 결승과 200m 예선까지 포기했다.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에서야 이번대회 첫 번째 금메달을 자유형 800m에서 획득했다.

썬양은 남자 자유형 400m과 자유형



크리스토프 밀라크

200m 2관왕에 올랐다. 썬양의 약물 관련 한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이번 대회 내내 '약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은 썬양은 호주의 맥 호턴(23)과 영국의 던컨 스콧(22) 등 동료들에게 약속과 기념 촬영 등을 거부당하는 이른바 '썬양패싱'으로 체면을 구겼다.

/특별취재단=김한영 기자 young@

교육부장관상
시·도 교육감상 수여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No Bullying, Yes Bling!

제8회

청소년축제

2019. 08. 17(토) 10:00 ~ 19:00

광주 동구 금남로 공원

대학선택을 위한 주요 대학 입시홍보관 / 진로 탐색 및 적성 상담 / 학교폭력 상담
신나는 체험활동관 / 대학생 인기 댄스, 밴드 공연 / 경품 이벤트

경연대회 모집안내

모집분야	대상	모집기간
공연예술분야 (댄스, 음악, 풍물 등) 3:3 길거리 농구대회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참가비 무료)	8월 13일(화) 까지

문의전화_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55 / 010.7174.1257
자세한 사항은 **NAVER 카페** <http://cafe.naver.com/youngkwangju>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_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_ 교육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광주지방경찰청

이탈리아 남자 수구 우승...미국 여자수구 대회 3연패



26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수구 금메달 결정전 미국과 스페인의 경기에서 승리한 미국 대표팀이 환호하고 있다. /특별취재단=최현배 기자 choi@

이탈리아와 미국이 2019 광주세계수영 선수권대회 남·여 수구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미국 여자 수구대표팀은 대회 3연패를 달성했고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통산 6번째 왕좌를 차지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27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수구 결승전에서 스페인을 10-5로 물리쳤다. 예선부터 무패가도를 달린 이탈리아는 결승에서도 스페인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전승으로 2011 상하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한 이후 8

년 만에 왕좌에 복귀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과의 팽팽한 접전 끝에 5-3으로 앞선 채 2라운드를 끝냈다. 이탈리아는 3라운드에서 연속 3골을 넣으며 8-4로 스페인과의 격차를 벌였다. 스페인은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에 고전하면서 10-5로 패배했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여자 수구 결승에서는 세계 최강 미국이 스페인을 꺾고 2015 카잔, 2017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 대회 3연패를 기록했다. 미국은 지난 26일 열린 여자 수구 결승전에서 한 수 위의 경기력으로 스페인을 제압했다. 2

라운드 때 3-3 동점까지 기록했던 스페인은 이후 미국의 공세에 밀려 잇따라 골을 내줬다. 미국은 스페인의 추격 골이 터질 때마다 곧바로 득점으로 응수하며 11-6, 대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통산 6번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한 미국은 2위인 통산 우승 2번의 이탈리아·헝가리와의 격차를 더욱 벌였다. 남·여 대표팀 모두 결승에 오른 스페인은 우승 문턱에서 모두 패하며 은메달에 머물렀다. /특별취재단=김한영 기자 young@

이집트 첫 2회 연속 동 오스만 "아프리카·중동 여성에 힘 되길"

이집트 최초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메달을 따낸 파리다 오스만(24·사진)이 2회 연속 시상대에 오르는 또 다른 최고 기록을 만들었다. "이집트는 물론 아프리카와 중동 여성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꿈을 더 자신 있게 펼칠 수 있게 됐다. 오스만은 지난 27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접영 50m 결승에서 25초47로 3위를 차지했다. 그는 201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대회 여자 접영 50m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집트가 세계수영선수권에서 얻은 첫 메달이었다.



광주에서도 오스만은 이집트와 아프리카에 희망을 안겼다. 이번 대회에서 백인으로 구성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아프리카 선수 중 결승에 오른 이는 오스만뿐이다. 오스만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시상대까지 올랐다. 경기 뒤 만난 오스만은 "사실 오전 4시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이유를 알 수 없

는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자"고 그녀 자신에게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활짝 웃었다. 오스만은 1995년 1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태어났다. 오스만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이집트인 치과의사였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5살에 수영을 시작한 그는 곧 이집트 수영의 아이콘이 됐다. 오스만은 12살이 된 2007년에 이집트 대표로 뽑혔다. 이집트 수영 역사상 최연소 국가대표였다. 이후 2008년 미국에서 체계적인 훈련에 나선 오스만은 2011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세계주니어수영선수권대회 여자 평영 50m에서 26초69로 우승하며 수영계를 놀라게 했다. 오스만은 2013년 바르셀로나 대회 접영 50m에서는 이집트 선수 중 최초로 결승(7위)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2017년 부다페스트대회에서는 메달까지 따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집트와 아프리카, 중동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고 말해왔던 오스만은 값진 동메달을 따낸 날에도 "내가 올린 성과가 아프리카, 중동 여성들에게 '우리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